

2023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일반공모 심의 총평

165개의 신청서 중 단 18개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의 모습, 현재가 어떠한지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게 합니다. 기존의 3개 사업(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신박한 실험과 도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이 통합되어 '단체의 고유한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공모 요강)하기를 요청한 이번 경기 문화예술교육 일반공모는, 이전의 방식의 반복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사유와 질문, 실험들이 내용과 형식을 넘나들며 시도되기를 기대하는 지원제도의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교육이라는 관습화된 용어에 갇혀 내용과 형식, 재료와 도구를 '완벽하게' 정해놓고 시간을 운용하는 흐트러짐 없는 풍경에 자족하거나 박수를 치진 않았는지, 예술가들의 사유와 실험에 관여(참여, 개입, 구성 등)하는 주체로서 시민들은 계몽이 필요한, 부족하거나 가여운 대상임을 내포하는 '수혜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점들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살거나 활동하는 물리적 장소이기도 한 지역이 예술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발현된 사례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이라는 당사자성은 프로그램의 주제와 과정을 구체적이면서 섬세하게 구상하여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요건으로 작용하고, 제안한 프로그램의 이전과 이후의 맥락들을 가늠할 수 있는 연결성 내지는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주장합니다.

다양한 형식과 방식의 제안도 눈여겨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역과 분야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관점을 토대로 굳어지지 않는, 장르기반의 담백하고 목직한 기획도 포함됩니다. 탈형식이나 비형식을 형식에 대한 태도이자 방법적 관점으로 선택하여 유연하게 접근한 실험적 작업들이 시민들과 만나 어떤 사건과 경험들을(예술가와 시민 서로)상호간에 형성하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기획서들은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자기 정의를 넘어서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분은 있으나 자신들이 만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함이 부재한 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추구하는데 몰입하고 있다거나 주민 전체, 누구나 하는 식의,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누구여야 하는가에 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의도나 문제의식, 기획의 배경이 되는 고민들이 가진 메시지는 의미있는데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작가성이 강한 프로젝트 중 예술교육가의 독자성/창의성은 강조되나 참여자의 역할, 개별성, 진행단계나 흐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공공성이나 참여자와의 상호성에 대한 고민의 결여는 창작을 위한 리서치과정과 혼동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경험 및 사전준비, 참여자에 대한 연구와 윤리의식, 예술적 독자성과 R&D에 대한 고려 등이 엿보이는 단체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병렬식, 단순 체험식 프로그램 구성, 목표와 주제의식이 모호한 융합, 참여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주제/목표와 접근방식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기존 사업트랙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지원단체의 자율성이 커진 반면, 지원의 규모가 축소되어 향후에는 전반적인 지원방향이나 선정 준거에 대한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악, 무용 등 기술적 학습에 기반한 활동이 주축이 되는 단체의 경우 나름의 당위와 수요는 예측되나 상대적으로 진입이 어려운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선정된 단체의 경우에도 여러 층위의 관찰과 해석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미 앞선 문제의식과 예술적 태도와 방법을 구사하는 현장을 배우고 유포하는 작업, 상대적으로 보다 내밀한 기획적 질문과 섬세한 조율이 필요한 현장은 서로가 필요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질문의 교류 과정으로서 현장과 지원사업/제도가 서로 보완되고 보충될 수 있는 장치가 관성적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을 넘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기획공모 <난생처음 꿈·지> 심의 총평

2023년 난생처음 꿈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모든 예술교육가 및 단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난생처음 꿈지 사업의 서면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난생처음 꿈지 지원사업이 이제 막 시작하려는 문화예술교육단체를 위한 '성장 지원' 사업으로 예술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 차원에서는 시작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지원사업의 현장 안착으로 고무적인 일인 동시에, 예술 현장에서 창작 예술가 혹은 개인 예술강사에서 예술교육단체로의 확장과 전환을 꾀하는 팀에 대한 적절한 지원사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지원하신 모든 이들에게 사업 참여의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올해 난생처음 꿈지에서 선정의 주안점으로 삼은 것은 당장 문화예술교육 기획에 대한 능숙함이 없더라도 교육 안에서의 예술적 경험, 예술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자기만의 문제의식이 있는지,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타 예술교육자 및 멘토 등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 변화를 꾀할 정도의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지였습니다.

다만 좋은 문제의식과 흥미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에도 시작하는 단체로서의 지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한 단체 중 상대적으로 예술교육 경험이 이미 충분하다고 보이는 팀, 그리고 역량강화의 필요성은 있으나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전에 예술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공개강좌나 연수 등을 우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단의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에 함께 하지 못하신 단체도 예술 현장과 예술교육 현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선정되신 단체는 이번 난생처음 꿈지 참여가 본격적인 문화예술교육 단체로의 발돋움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김지옥, 김진환, 설동준

2023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기획공모 <노는 기획> 심의 총평

2023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노는 기획>은 문화예술교육에 충분한 경험과 레퍼토리를 가진 문화예술교육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스스로의 자생력 강화와 판로 개척을 위한 연구, 학습, 수요처 발굴과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비사업에 이어 2022년 워크숍과 피칭데이를 거치며 단체의 <노는 기획>과 기관들의 노는 예산을 다수 매칭시킨 긍정적 사업입니다.

기획공모 <노는 기획>은 행정심사와 1차, 2차 서류심사, 인터뷰심의를 거쳐 총 3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첫째, 노는 예술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수요처 발굴에 대한 의지, 적극성, 둘째, 교육계획의 구체성과 대상에 대한 이해도, 교수방법의 적합성 등 교육기획과 내용의 우수성, 셋째, 문화예술교육 운영경험 및 성과, 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적합성의 사업운영 역량 등 총 세 가지 심의지표를 통해 긍정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공모에 지원한 많은 단체들이 기존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나 펀드를 재단이 매칭해주는 사업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으며, 경기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중에서도 <노는 기획>은 충분한 문화예술교육의 경험과 역량을 갖추었으나 공모지원의 한계를 넘어 스스로 운영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단계로 도전해보고자 하는 단체와 함께 미술계의 아트마켓이나 영화계의 피칭행사를 통한 펀드매칭과 같은 형태를 지향하는 만큼 무엇보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노는 예술>의 전년 사업내용 및 기사나 선정 프로그램들을 서치해보는 최소한의 성의들은 필요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심의 전반에 걸쳐 <노는 기획>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목적성과 수요처 매칭에 대한 인지와 의지, 워크숍과 피칭데이 등 새로운 과정을 통해 단체 스스로가 무엇을 취할 것인지를 명확히 고민하였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았고, 판로개척을 위한 향후 확장성과 함께, 다양한 수요처와 함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율할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성 또한 통한 주요한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선정된 단체들은 단체의 경험과 제안한 프로그램에 대해 명확한 자신감과 함께 프로그램 판로개척에 대한 필요성을 진취성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 본 사업의 지원 취지에 적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차 추가 공모에서는 <노는 기획> 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고 요구하고 있는 단체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 해 많은 에너지를 쓰는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으나 단회성 지원 공모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단체 스스로 홍보마케팅 요소를 <노는 예술> 함께 찾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함께 할 단체를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심의위원 김태황, 김태희, 이초영